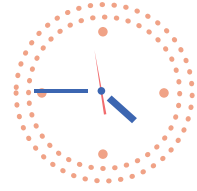


디자인이슈

Design Issue

www.designdb.com

VOL.06 07.12



Design **issue**



정책개발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디자인경영의 시작
오피스 디자인 혁신



2007. 12



Contents

1. 머리말: 오피스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 2
2.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오피스 디자인의 진화 4
3. 비즈니스 실적 증진의 일등 공신 - 오피스 디자인 혁신 사례(1) 6
4. 직원 만족의 일등 공신 - 오피스 디자인 혁신 사례(2) 10
5. 맺음말: 경영전략으로 활용되는 오피스 디자인 16

1 머리말

오피스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

- "건물을 짓는 건 인간이지만 바로 그 건물의 형태가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We shape our buildings, and afterwards our buildings shape us.) - 윈스턴 처칠 (1943년)
- 환경과 거주공간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 명언은 기업의 오피스 디자인과 비즈니스 실적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디자인경영이 주요 화두로 부상한 오늘날,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 혁신은 물론 기업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디자인전략 툴을 연구 개발 중이다. 그 중에서도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증진, 운영비용 절감, 직무 만족도 향상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 및 이탈 방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한 오피스 디자인 혁신이 디자인경영의 주요 전략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에 들리면 사무실과 로비, 회의실, 직원 식당에서까지 새로운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곳곳에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독특한 개념의 디자인들로 가득차 있다.

'디자인은 꾸미는 것이고 괜히 돈만 들어가는 장식'이라는 관념이 뿌리깊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디자인경영이 비용을 줄이고 회사의 생산성을 올린다고 본다. 현대카드는 사장실이나 직원들 업무 공간이 일관된 디자인으로 설계돼 있다.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 고칠 때는 훨씬 싸게 먹힌다.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는 "재래시장 같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업무에서 창조적인 감성마케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업무 효율성은 물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경영을 내부 인적자원경영에 응용한 것이다.

카드회사 맞아? 맞네! 카드회사.
중앙일보 2007. 6. 22. 기사 편집



- 지식기반경제, 창조적 경제로 대변되는 21세기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적자산의 끊임없는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거주 공간이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사무 공간 디자인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는 것이 오피스 디자인 혁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실상 20세기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거주공간을 제공했던 현대식 사무공간은 설계에서부터 시작해 레이아웃, 부대시설, 심미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실현해주기 보다 오히려 저해하는 물리적 장애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사진에서 보듯 기존의 대부분의 큐비클 디자인은 사무자가 내부를 향해 마주 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함이 있음



- 외양상 독특하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오피스 디자인보다는 조직 내에서 새로운 지식이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오피스 디자인이야말로 내부 고객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경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디자인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글로벌 선진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오피스 디자인의 진화

- 칸막이를 최소한으로 줄여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모색한 오픈플랜식 (open-plan: landscaped office라고도 함) 오피스 디자인은 1950년 유럽의 독일에서 처음 선보였다. 오픈플랜식 오피스 디자인은 오픈된 공간에서 사무책상과 가구를 비정형화된 상태로 배치하는 한편 상관과 부하직원들이 함께 일하면서 업무 플로우와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
- 당시 허먼 밀러 (Herman Miller)를 비롯한 미 가구제조업체들은 공간 효율과 업무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 가구를 선보이며 오픈플랜 오피스 디자인 확산에 일조한 바 있다. 시스템 가구 도입을 통해 인테리어 벽 설치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언제 어느 때고 변형이 가능한 보다 탄력적인 오피스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 7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기업들의 시스템 가구 이용이 늘어나면서 오피스 공간의 디자인 및 유지관리는 최소화된 사무공간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치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다시 말해 실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해당 공간의 냉난방이나 통풍의 효율성 배가가 중요해지면서 '사무공간의 효율성' (office performance)이 더욱 주목 받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기업성장을 주도할 지식업무의 규명과 창조, 유통을 관장하는 소위 '지식 관리' 업무는 사내 IT 부서의 영역에 국한되게 되었다. 공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배선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한 일렬 형태의 시스템 가구와 책상이 대표적인 오피스 디자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대면 접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기업 환경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만이 가능한 사무 공간 배치는 그 효율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 언뜻 실용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사무 공간 디자인은 지식기반 경제, 나아가 아이디어 경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언어화되거나 문서화,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혁신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소위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는 '우연한 조우'(chance encounters)가 갖는 비즈니스 가치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 한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DA 등 첨단 디지털 기기들의 출현과 함께 업무 속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오피스 디자인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장소에 상관없이 근무가 가능한 업무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팀 기반 업무체제가 확산되면서 사무 공간 디자인의 진화는 불가피한 단계에 직면한 것이다.

- 이처럼 기업이나 조직이 갖고 있는 잠재적 지적자산을 구체화시키고 업무 환경의 변화 (업무의 이동성 증가, 팀 체제, 협업체제의 증가)를 반영한 21세기형 오피스 디자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캘리포니아 매니지먼트 리뷰 최신호에 따르면 기업 실적개선을 위해 사무 공간 디자인을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미국 기업들은 전체의 5%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결과가 나온 바 있다.



- 오늘날 기술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교류는 점점 제한적으로 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human contacts'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오픈된 형태의 팀체제, 협업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의 혁신적인 오피스 디자인을 통해 기업이나 조직이 지닌 혁신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3.

비즈니스 실적증진의 일등 공신 오피스 디자인 혁신 사례 (1)



- 사무 공간 디자인이 비즈니스 실적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미 재무장관이자 골드만 삭스의 대표를 역임한 폴 오닐 (Paul O'Neil)이 지난 1987년 Alcoa社의 신임 CEO로 부임하며 선보인 대대적인 오피스 디자인 혁신 캠페인이 주목할 만하다.

- Alcoa社는 사무 공간 디자인의 중요성을 역설한 오닐 CEO의 리더십 하에 과감한 오피스 디자인 혁신을 단행했고 (오피스디자인 컨설팅업체: Design Alliance) 그 결과 87년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당사 매출규모는 2000년 230억 달러로 급신장하는 괄목할 '효과'를 경험했다. 물론 Alcoa社가 이룩한 눈부신 성장 배경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닐 前 CEO가 확인하듯 사무 공간 디자인 혁신이 기업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은 예상 외로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어두침침하고 경직되고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예전의 Alcoa社는 모든 직원들이 커다란 창문 근처에서 자연광을 맘껏 즐길 수 있는 밝고 쾌활한 분위기의 Alcoa社로 바뀌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원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장' 조성이었다. 건물 각 층의 입구마다 오픈 식 주방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직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조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더 빠르게 함으로써 폐쇄된 엘리베이터가 아닌 오픈된 에스컬레이터를 더 많이 이용해 많은 직원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



오피스 디자인의 최신 트렌드 1

오피스 디자인 혁신 붐이 확산되면서 기존엔 상상할 수 없었던 독창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오피스 디자인 모델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난 해 열린 가구무역 박람회인 Neocon 전시장에서 이 같은 오피스 디자인의 트렌드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우선 오피스가구업체의 선두주자인 스틸케이스의 Studio 53이 단연 화제를 모았다.



수직과 수평 공간 모두 벨벳느낌의 빨간색 쿠션소재로 뒤덮인 Studio 53 모델은 기존 사무공간 디자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며 전시 참가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8피트 정입방체로 연상되는 기존의 '덜버트' 식 오피스 디자인은 책상과 서랍장, 선반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졌으나 스틸케이스社は 이 같은 상투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오피스디자인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Don't Hate Me because I'm a Cubicle' (스틸케이스 디자인의 주요 컨셉) 메시지를 던지며 발상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스틸케이스가 선보인 이 같은 파격 디자인의 배경엔 오늘날 기업들의 주역인 X세대, Y세대의 업무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 관박이마냥 동일한 형태의 기존 사무 공간보다는 협업 체제를 지원하는 사무 환경을 훨씬 선호하는 게 이들 신세대들이며 필요에 따라 맞춤형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오피스 디자인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 투자회계 컨설팅기업인 SEI 인베스트먼트社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80년대 후반 당사는 15%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외양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사내 핵심 사업부인 기술, 자산운용, 연금컨설팅 부서 간의 '따로 노는' 현상이 심화되고 딱딱한 분위기의 경직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창업주인 알 웨스트 (Al West) CEO는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고 증진' (get out of their box, to think differently)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7년간에 걸친 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조직 개선과 시스템 혁신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경영전략으로서 선택한 것이 새로운 오피스 디자인이었다.
- 그 결과 SEI는 탁 트인 넓은 공간을 주무대로 비정형화된 사무공간을 배치시킨 오픈플랜식 오피스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 모든 가구마다 바퀴를 달아 원할 때 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큰 변화였다.
일반적으로 직원 한 명이 책상을 이동할 때 마다 전기통신 배선가나 컴퓨터 전문가의 지원은 필수적이었으나 그 같은 번거로움이 가구에 달린 '바퀴'로 사라졌고 이사비용은 1인당 1,400달러에서 제로로 바뀐 것이다.
- 이 같은 변화는 계약 성사율에서도 여실히 반영되었고 잠재적 고객이 신사옥을 방문할 경우 계약 성사율이 기존의 두 배 이상인 무려 90%를 육박하는 효과를 만끽하였다. 오피스 디자인 개선에 기반한 혁신 프로그램 단행 이후 1996년~2001년에 걸쳐 직원 수 하나 늘리지 않고 매출이 매년 40%씩 증가하는 괄목할 성장을 구가하게 된 것이다.

오피스 디자인의 최신 트렌드 2

Knoll이 올 봄 선보인 Dividends Horizon 모델은 실내 벽과 파티션은 반투명 소재를 이용하고 오픈식 큐비클을 추구하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룹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Herman Miller가 선보인 My Studio Environment는 전통적인 사각형 모양의 큐비클을 거부하며 라운드 형태의 완만한 곡선 코너를 만든 것이 이채롭다. 원형 테두리로 둘러싸인 사무공간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거주자는 편안함은 물론 기존의 인습을 타파한다는 혁신 스타일의 선봉장에 선다는 느낌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오피스 디자인 모델들이 독창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지만 투명(또는 반투명) 소재를 이용한 사무공간의 투명성과 오픈 문화 연출, 파티션 높이를 낮춰 다른 직원과의 잦은 대면과 대화를 유도한다는 점은 공통점으로 지적된다.



- 물론 단순히 오피스 디자인을 바꾼다고 해서 비즈니스 성공이 당장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행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오피스 디자인의 '열린 문화'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즈니스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직원 만족의 일등 공신

오피스 디자인 혁신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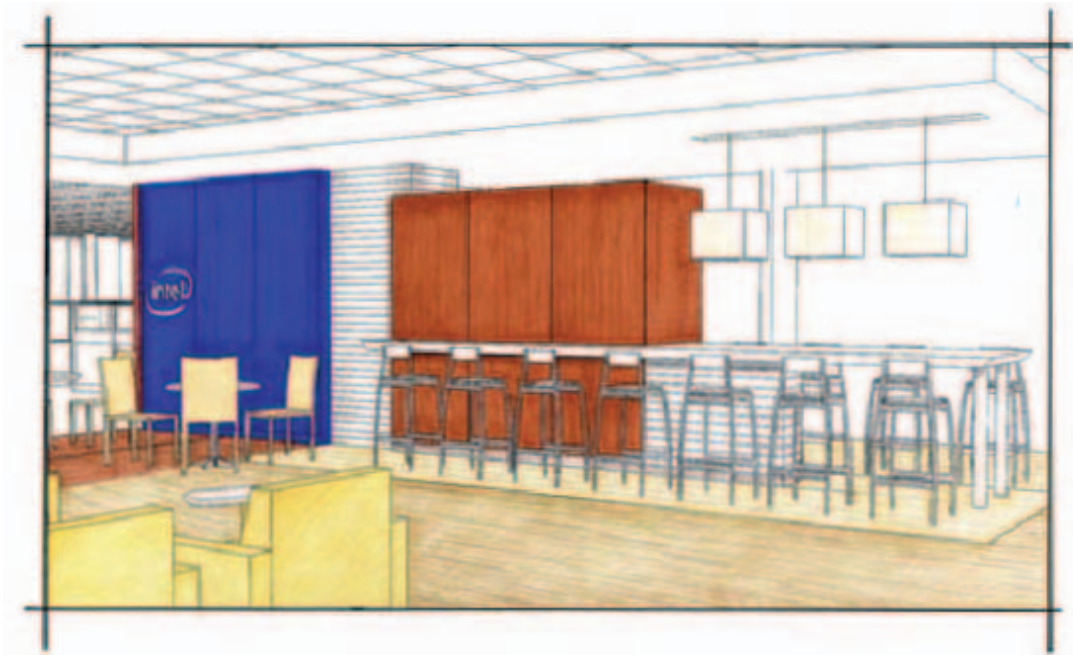


- 오피스 디자인 혁신의 활용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기업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편의성 제공, 이를 통한 우수인재 유치 및 이탈 방지, 나아가 기업 문화와 기업 정체성 재정립을 위해서도 오피스 디자인 혁신은 예상치 못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최근 미 IT업계의 오피스디자인 혁신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인텔은 오피스디자인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소위 '달버트' 스타일의 사무 공간 디자인을 확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회색빛깔의 높다란 파티션이 칸칸이 쳐 있는 인텔의 기존 오피스 디자인은 칙칙하다는 이미지 외에도 침담화하고 있는 현대기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 (Conan O'Brien)이 인텔 본사를 방문하면서 "온통 회색빛 큐비클로 뒤덮인 인텔 사무실에선 모든 직원들이 똑같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결국 개성이라고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인다."는 발언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무려 5만건 이상 조회되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인텔의 오피스 리디자인 프로그램이 전격 실행되는 계기로 작용

- 큐비클 (cubicle) 형태의 오피스 내에선 동료가 바쁜지 한가로운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질문도 이메일을 통해 보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했고 파티션이라는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직원들의 고립감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 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 업무 편의성과 함께 공동 작업에 대한 니즈 확대도 오피스 리디자인의 붐을 확산시키고 있다. 즉 협업체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여러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것이 오늘날 오피스 디자인 혁신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하다.

인텔이 최근 실시한 서베이결과에 따르면 사무실 내 직원이 자리를 비운 '큐비클 공실률'은 항상 약 60% 수준을 보였으며 대다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도 일주일에 평균 3일 꼴로 나타남

이를 감안해 오픈 테이블과 같은 공용 사무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과 동일한 공간만으로도 추가 인력을 20%나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업무공간의 탄력시스템을 도입한 시스코社의 경우 오피스 가구 비용을 50% 가량 절감할 수 있었으며 임대 비용과 기타 사무공간 서비스 비용을 약 37%나 절감시키는 데 성공

오피스 디자인의 최신 트렌드 3

업무공간의 디자인 혁신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공간을 또 다른 혁신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휴대용 오디오 사업부인 Zune은 직원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을 회사 브랜드와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다.

직원들이 음악이 가져다주는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하에 중앙홀에선 수시로 공연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진) 카페테리아에 위치한 DJ 부스에선 직원이 직접 턴테이블을 돌리며 끼와 영감을 발산할 수 있는 'Release Your Inner DJ'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애사심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최적의 사무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오피스 디자인 전략이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소위 '8th S' 전략을 도입한 TEPPCO (텍사스 에너지 회사)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8th S란 기업 실적 강화를 위해 필요한 7가지 S에 8번째 요소로 공간(Space)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경영전략 회의에 참석하여 비즈니스 실적 변화에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시켜 분석했는데 이는 디자인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S

Subordinate goals, 비즈니스 장기 목표
 Strategy 비즈니스 포커스와 접근법
 Structure 조직 구조, 업무 명세, 개별 직무 요건
 Systems 비즈니스 프로세스
 Skills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
 Staffing 직원 보상 체계
 Style 직원 가치와 행동

8th S

Space 최적 사무 공간 창출

- 우선 TEPPCO는 하나의 거대한 오픈 공간을 기반으로 가변 시스템을 채택해 향후 조직 구조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 모든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에 기능성과 상징성이 내포되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가령 24시간 관제 센터를 리셉션 공간 바로 옆에 위치시켜 고객과 직원 모두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를 항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홀의 경우 팀 중시 전략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했으며 직원별로 독립된 사무 공간 확보는 회사가 직원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 지를 반영했다.



Table1. 8th S and 8th S와 7 S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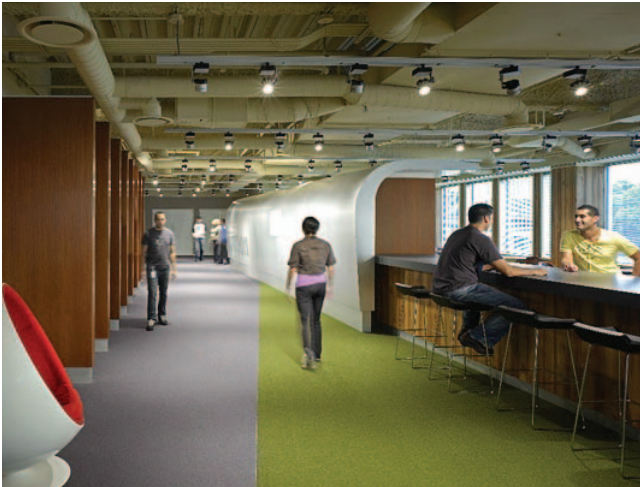
7S	8th S : 공간 디자인 툴들	각 디자인 툴이 7S에 미치는 영향
구조와 시스템	· 인접성 직원과 업무 기능이 각각 연관성을 고려해 배치	조직 구조와 시스템이 효율적 커뮤니케이션과 원활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장
스킬과 스타일	· 공간 활용성 직원 배치 및 사무실 밀도	조직의 스킬과 스타일을 조화시킴
구조, 전략, 직원 배치, 스타일	· 개방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오픈 오피스와 프라이빗 오피스 디자인 적용 · 기준 타입, 사이즈, 가구, 장비, 편의 시설의 선택과 적용을 위한 규칙 적용)	조직 구조, 전략, 인원배치, 스타일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무실 기준 제정
전략과 상위 목적	· 융통성과 적응성 사무실 레이아웃 변경의 용이성	사무실 공간이 회사의 전략과 상위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인원 배치와 스타일	· 오감 친화적 환경 조성 사무실의 조명, 컬러, 향기, 사운드, 직물을 고려한 환경 조성	직원 행동과 스타일의 모든 측면을 고려
상위 목적과 전략	· 상징과 브랜딩 사무실 전체 공간에 디자인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해 회사 철학, 아이디어, 콘셉트를 표현)	조직의 상위 목적과 전략에 대해 끊임없이 환기시켜줄 수 있는 환경 조성

Table2. TEPPCO 변화

8S	이 전	이 후
상위 목적	수익성 높고 잘 통제된 파이프라인 회사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이프라인 회사
전략	조업 효율성	제품 다양성, 핵심 고객 관계 구축에 주력
구조	에너지 대기업의 조직 구조 분류: 조업 중심	조업, 마케팅, 고객 관계의 균형
시스템	과거 최적 사례 조명을 통한 조업 최적화	모든 의사결정의 경제적 분석
스킬	조업	조업, 마케팅, 고객 관계, 환경 보호
직원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는 분위기 조성	성과 보상, 경력 개발에 포커스
스타일	보수적, 폐쇄적 : 낮은 투명성	분석적, 개방적, 명석함 : 높은 투명성
공간	전통적 부서별 사무실 배치 : 100% 닫힌 개별적 사무실 환경 구축, 모든 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팀 별 배치 : 80% 오픈된 환경, 시각적 투명성이 매우 높음. 그룹 업무를 위한 개방적 공간 확보

5. 결론

경영전략으로 활용되는 오피스 디자인



• 그 동안 사무환경 디자인은 곳 디자인, 효과적 브랜딩, 고객 만족 향상 가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오늘날 기업들은 기능적, 미학적 환경 조성 뿐 아니라 비즈니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디자인경영 톨로서 오피스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 물론 구체적인 형태의 생산물이 없는 화이트칼라 업무의 특성상 사무 환경 디자인의 가치와 효용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 디자인 전략의 성공사례를 미리 수립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주목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 증진을 위한 새로운 공간 창출 행위로 인식될 때 그 가치는 더욱 인정받을 수 있다.
- 사무 환경 디자인 전략은 회사의 중장기 목표를 이해하고 조직의 비즈니스 자원을 활용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 솔루션을 의미한다. 조직의 목표, 정책, 활동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패턴이나 계획을 의미하며 적절하게 구축된 디자인 전략은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 실상 오늘날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는 오픈 오피스 디자인 컨셉은 “최소 공간에 최대 인원수용”과 “비용절감”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고밀도 효율성(high density efficiency) 가치에 밀려 업무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사이즈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 이에 따라 오늘날 사무 공간 디자인의 핵심 가치는 고밀도 효율성에서 “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 개개인의 니즈 충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신기술과 네트워크 시스템 발전 덕분에 조직의 니즈와 구성원인 직원의 니즈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근무 환경 디자인 솔루션 도출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최신호 (12월) 또한 기업 경쟁력과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직원들의 ‘두뇌인지건강’ (cognitive fitness)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창의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놀이’와 ‘다양한 실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사무공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미 IT업계에서 화제를 모은 chat chamber나 Zen den이 대표적인 예다.

- 캘리포니아 매니저먼트 리뷰 최신호는 ‘Working Smarter Through Leveraged Office Design’ 라는 기사를 통해 오피스 디자인의 3대 기능을 지목하며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협업체제, 즉 팀기반 업무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수단적 기능, 개인 및 그룹의 차별성과 지원을 구분해주는 상징적 기능, 마지막으로 직원 개개인의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미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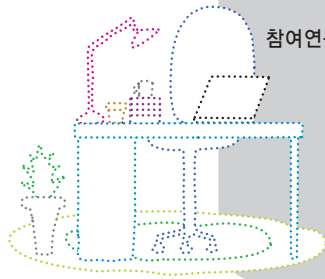
-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실적 강화를 위한 오피스 디자인 혁신은 이 모든 기능을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비즈니스의 특성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뉴 트렌드 기조도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또한 개별 비즈니스와 직원들의 다양한 성향, 향후 기업 전략, 현재 비즈니스의 문제점 등 모든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 오피스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

Designissue | 디자인이슈 VOL.06

발행일 2007년 12월
발행인 이일규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기획관리본부 정책개발팀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주소, 463-9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전화, 031-780-2034 팩스, 031-780-2040

참여연구원 총괄 이장한
연구원 허석
조두현
이경
유영선
김정원
정보주 해외정보컨설팅
시드원 커뮤니케이션스 (www.seedone.co.kr)



- 본 보고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designdb.com>)를 통해 제공됩니다.
-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에 연락처 (youngsun@kidp.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책개발팀 유영선
TEL. 031-780-2034 FAX. 031-780-2040
<http://www.kidp.or.kr>